



청마는 가고 새해 어진 양 오시네

한 해가 넘어가는 맨모퉁이에 섰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암동 동향성당 뒤편을 찾았다. 브라질 리우 예수상까지는 못 되어도 맹글에 따라 제법 속연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왼쪽으로 부산항대교가 눈부시다.
해거름 노을빛이 맞지 않아 세 번의 출사를 고했

했다. 추웠다. 그래도 날이 제 아무리 춥다 한들 서민의 짙 짙한 삶만큼 모쪼록 강박할까. 찰주하는 청마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양처럼 어진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터를 눌러봤다.

이무현 사진작가(문현동 거주)

대연고 이동현군 대입 수능 만점

부산·경남에서 유일

남구 대연고 학생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인문계열의 이동현(3학년·용호동 거주)군은 이번 수

능에서 국어 B형(표준점수 139점), 수학 A형(131점), 영어(132점), 한국사(67점)·법과정치(67점)를 선택해 표준점수 536점으로 부산·경남 지역 응시자 중 유일한 만점자가 됐다.

용문초등과 용호중학교 등 줄곧 남구에 거주해 온 이군은 중3 때만 해도 전교 30위권의 성적에 머물렀지만 고교 입학 직후부터 전교 1, 2등으로 급상승했다. "중학교 수업이 얇기 위주인 반면 고교 수업은 이해와 탐구에 바탕을 뒀 공부한 게 주효했다"는 게 이군의 설명. 또 수능 만점에는 방대한 독서량이 뒷받침됐다고 밝혔다. 장르에 편중하지 않고 철학, 인문, 사회서적 등 폭넓은 책을 읽은 이군은 고3시절 한 해에만 40권이 넘는 도서를 찾아 읽었다.

고3때 전교 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수험 공부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군은 고2때 부산 10여 개 고교 동아리와 연합해 '부산 청소년 소통연대 청아제'를 결성하고 150명 규모의 '청소년열린포럼 YOUNF(유포)'를 여는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금융 공기업을 BIFC 입주 완료

지난 17일 주택금융공사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이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금융 분야 공기업의 문현금융단지 본사 이전이 완료됐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3일 4월 2차 이전 작업을 끝내고 15일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대한주택보증은 본사 기능 전체가 부산으로 옮겨 왔으며, 283명의 직원이 부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일 개청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본격 부산시대를 열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지난 1일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본사 업무를 시작했다. 캠코는 서울 본사 인원 950여명 가운데 종합기획부를 비롯한 26개 부서 730여명이 부산 본사로 옮겨와 근무 중이다.

이밖에 올초부터 본사 이전작업을 진행해 온 한국거래소도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사옥에 입주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201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쇄식과 함께 신사옥 입주식을 갖는다. <관계기사 3면>

남구, 지방채 전액 내년 조기 상환

<49억8500만원>

‘자린고비’ 경영·BIFC 효과… 이자비용 8억원 절감

남구가 부채 전액을 조기에 갚기로 했다. 지난 9월 남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남구청사와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발생한 지방채무 잔액 49억 8500여만원을 내년 초에 전액 조기상환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환 재원은 남구국민체육센터 운영 흑자로 얻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국제금융센터(BIFC) 준공으로 예상되는 구세

증가분 26억원과 건축 재정으로 확보한 순세계 잉여금 14억원 등이다. 부채 조기 상환으로 8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이밖에 최근 분양한 대연동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 단지 안에 구유지 도로가 편입되면서 구유지 매각으로 36억원의 수익도 생겼다. 남구는 절감된 이자 비용과 구유지 매각 수익금을 도로정비와 복지 분야 등 그간 손대지 못한 숙원사업에 투입

할 계획이다.

남구는 한때 문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남구청사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총 127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건축재정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자체,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오랜 자린고비 경영을 펼쳐 올 연말까지 77억 여원을 갚은 상태다.

2015년 예산 2,480억원 확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3000만원 투입

내년도 남구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7.53% 늘어난 2,480억원으로 확정됐다.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2,334억원과 특별회계 146억원을 합쳐 모두 2,48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내년도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건전화에 기여하였고, 각 중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주민복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다.

지방채 조기상환 50억3,600만원, 자체 사업은 ▲대연1동 주민센터 신축 11억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3,000만원 ▲도로굴착 및 맨홀 유지보수 3억 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3억 600만원 ▲도시녹화 가로수 등 정비 1억 1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1억6,100만원 등 33억3,700만원이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생계급여(일반수급자) 160억1,000만원 ▲기초연금 688억 9,4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75억원 ▲우암동 도시숲 웰빙산책로 조성 1억 4,400만원 등 모두 1,413억5,800만원이다.

평화공원에 매머드급 조형물

<높이 15.5m>

6.25참전 UN군 기념물 준공… 26일 제막식

남구 평화공원에 UN참전 용사의 공훈을 기리는 매머드급 조형물이 들어섰다.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건립사업으로 추진된 이 조형물은 높이만 무려 15.5m나 된다. 조형물은 UN군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숭고한 희생에 대한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지킴을 의미해 표현했다.

주 조형물 주변으로 UN군 활동기념비와 21개 참전국의 공적비를 원형으로 배치했다. 국비 6억7400만원이 들어갔다.

조형물은 UN기념공원, UN평화기념관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부산시민과 학생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2시, 평화공원 중앙광장에서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참전용사 및 각급단



체장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조형물 제막식을 가진다. ☎607-4044

2015년 해맞이
스카이워크로 오세요!

부산광역시 남구는 올미년 양파해를 맞아 오륙도스카이워크광장에서 해맞이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이어 오륙도스카이워크에서 2번째로 열리는 이번 해맞이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연날리기, 대북공연과 주민의 소원성취 및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새해인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1월 1일 오전 7시

• 장소 : 오륙도스카이워크 광장

적십자회비,
사랑을 저변
희망이 커집니다

•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
2014. 12. 1~2015. 1. 31

• 정기 후원문의 : 051-801-4011

남구의 보물 문현금융단지 <3면>

감만동의 산타들 <4면>

연극무대 오르는 이기대스토리 <5면>

시간이 멈춘 우암동 189번지 <7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훈공단 부산보훈병원위탁병원

환자를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하는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515-중-43847

부 산 성 소 병 원

종합검진센터

내과

내분비질환
순환기질환
소화기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영상의학과

종합검진
국민건강검진
5대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MRI·CT

핵의학과

PET-CT
감마카메라
동위원소치료실

수술센터

외과

갑상선암
양성결절 고주파
유방암·맘모툼
치질·탈장
대장암

정형외과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척추질환
골절, 족부 질환
통증질환

SMC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75 (뚝골역 2번 출구)

www.seongso.co.kr

상담문의 051) 633-1123~5

검진센터 051) 634-0100